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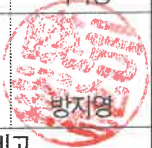



# 제36차(2026년) 정기총회 회의록

문서번호		사무국장	이사장
결	담 당		
재	 박주진	 김혜영	 방지영
협	경영지원팀장	비고	
조	 임혜숙		

- 일 시 : 2026년 2월 23일(월) 14:00
- 장 소 : NC문화재단 Stage Black
- 참 석 : 재적(대의원)구성원 150명, 참석 56명, 위임 25명, 불참 2명
- 의 장 : 방지영((사)국제아동청소년연극협회 한국본부 이사장)

## 1. 성원보고 및 개회선언

- 재적(대의원)인원 150명 중 참석 56명, 위임 25명으로 총 81명으로 성원 구성
  - 구 성 : 정관 제4장(총회) 제20조(구성)에 따라 회원으로 구성
  - 성 원 : 정관 제4장(총회) 제23조(의결정족수) ①항에 의거 성원

## 2. 묵념(어린이·청소년 공연예술인 선영)

## 3. 개회사

## 4. 의결 사항 1

- 제35차(2025) 정기총회 회의록

## 5. 2025년도 사업보고

- 이사회 회의록
- 위원회 운영
- 사무국 주요 업무 일지
- 사업 보고

※ 총회 자료집 참고

※ 여러 예산적인 압박으로 외부기관과의 협력이 많이 진행되었음. 인건비 등 사무국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해당 부분으로 보존하였는데, 이제 보조금 예산에서는 상주인력 인건비 지급이 불가하여 큰 난관을 겪고 있음. 예술계에 적용되는 범위를 바꾸지 않는다면 더욱 압박이 심해질 것으로 예상되며, 많은 관심이 필요한 시점

## ■ 지회 현황

※ 경기지회 2025년 7월 25일부로 경기특별위원회로 체제 전환

## ■ 2025년도 회원(임원) 관리

※ 본부 단체에 경기지회 회원의 편입 사항 포함(본부 탈퇴 단체 포함)

## ■ 협약 체결

## ■ 지회 구조 개편 현황 보고

주제	내용
지회 구조 개편 현황 보고	<p>나숙경(15대 집행부 부이사장, 지회 구조 개편 소위원회 위원장)</p> <p>1. 지회 구조 개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취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질적인 지회 비활성화의 원인 해결 및 수도권 비대 현상·어린이 수 감소 등 시대적인 변화 반영</li> <li>· 비영리 민간단체의 공공 행정의 책임 강화</li> <li>· 본부와 지회가 독립적이면서도 유기적으로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li> </ul> </li> <li>- 과정 : 지난 총회 이후 소위원회 및 이사회를 통해 12차례의 회의 진행</li> <li>-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구, 인천지회는 현행을 유지하되 지회 통합 정관 적용</li> <li>· 경기지회는 경기특별위원회로 전환하고 한시적으로 본부 직영 체제를 통해 단계적인 재정비 추진</li> </ul> </li> <li>- 주요 개정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회비 본부 일괄 수납 후 일부 운영비 지급 방식으로 변경</li> <li>· 임원 선출 후 1개월 이내 본부 이사회 승인을 얻도록 하여 책임 행정 및 협력 체계 강화</li> <li>· 임원 자격 및 임기를 본부 임원 기준에 준하도록 정비</li> </ul> </li> </ul> <p>2. 지역위원회 설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회 개편에 그치는 것이 아닌 통합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지회위원회를 설치하고 정기적인 모임을 통해 전체 지회의 활동을 공유하고 논의하는 구조를 만들고자 함.</li> <li>- 본부 이사장이 의장이 되고, 권역별 지회장과 본부 추천인을 3인 이내로 구성해 지역과 본부의 결속력을 강화하고 지역위원회를 중심으로 지회를 활성화 하고자 함.</li> <li>- 행정력 강화와 본부와 지회의 협력구조를 통해 나아갈 수 있도록 정비</li> </ul> <p>※방지영(15대 집행부 이사장)</p> <p>매번 나오는 지회 활성화에 대한 방안으로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음. 경기도가 지역적으로 넓고, 인구(어린이 포함)가 서울보다 많아 지회에서 관리하기에 어려움이 있고, 시 단위로 이슈와 정책적 특성이 매우 다름. 경기권역에 대한 좋은 의견이 있다면 지역위원회에서 함께 이야기하고자 하며, 이외 지역에서도 지회 설립의 필요성 및 활성화에 대한 의견이 있다면 가감 없이 말씀해주시기를 바람</p>

## 6. 감사보고

- 사무처리 및 회계 전반이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관리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중략) 2025년 수입은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하였으나,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안정적인 재정 관리를 이루어낸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됩니다.(중략) 2025년에는 축제를 비롯한 다양한 사업을 성공적으로 확장·추진하며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이하 생략)

※ 자세한 내용은 총회 자료집 p.72 참조

## 7. 의결 사항 2

내용	찬성	반대	결과
1. 2025년 결산	56	-	인준
2. 2026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	56	-	인준

※ 정관 제4장(총회) 제23조(의결정족수) ①에 따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주제	내용
2026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	<p>※비정규사업 : 기업의 후원금으로 진행되는 사업은 정규사업으로 편성하기에 재정적 안정성이 다소 부족하여 비정규사업으로 분류하였음.</p> <p>※2027 아시테지 세계총회 관련</p> <p>1. 예산 예산 마련 작업을 하고 있으나 2000년대 이후 민간단체에 보조금으로 20억이 넘어가는 예산이 배당되는 경우가 없음. 20억 이상은 국가사업으로 3년 전 총리실 인허가가 필요하나 민간단체 활동이 해당 일정으로 계획되기 어려운 상황. ‘국가가 민간 예술단체에게 큰 돈을 주는 것은 불안하다’라는 인식으로 생기는 문제로 보고 극복하고자 노력 중임</p> <p>2. 주제 - Brave Futures : 어린이들의 상상식 및 워크숍 등의 경험을 토대로 어린이들이 중심이 되는 축제를 기획 중임 - 어린이의 목소리, 아시아 그리고 가능한 세계들 : 우리가 하고 있는 어린이청소년 공연예술에 어린이가 살아있는가, 어린이성이 어떻게 녹여져 있는가는 탐구하는 시간을 갖고자 함</p> <p>3. 사전행사 : 올해 사전행사로 국제·국내 컨퍼런스를 준비 중에 있으며, 어린이관극단과 함께 중요한 축으로 기능할 예정 - 국제 컨퍼런스 기획 : 황하영(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가제)서로 유기적인 길들 : 어린이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길, 예술가들이 어린이 공연을 만드는 길 서로 다양한 이들이 어떻게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지에 관한 탐구 예정 오스트리아(공연 및 연구단체), 영국(영유아극 전문가) 및 국내 전문가 섭외 중 - 국내 컨퍼런스 기획 : 최지영(어린이청소년연극IN 편집장) (주제)깨움과 마주함 : 어린이 청소년 공연의 예술적 현존에 관하여 섹션1. 어린이청소년극의 가치와 기록 섹션2. 신진 연구자 라운드 테이블</p>

## 8. 기타 안건 및 토의

내용	찬성	반대	결과
1. 제15대 집행부 이사장 임기 연장의 건	-	-	※추후 온라인투표로 결의

주제	안건 및 토의 내용
제15대 집행부 이사장 임기 연장의 건	<p>1. 안건 상정 배경 - 재작년부터 논의되어 온 안건으로, 작년 초 이사회 논의 결과 ‘1년 연장은 맞지 않다’로 결론 - 작년 말 김우욱 고문위원(2002 아시테지 세계총회 당시 이사장)의 재계안 (사업의 연속성 및 차기 이사장의 초반 1년 임기의 의미 퇴색 우려) - 이후 이사회를 통해 총회에서 회원들에게 해당 내용을 설명하고, 공청을 하는 것으로 의결 - 당장의 결론보다 내용에 대한 질의응답과 논의를 진행하는 과정을 갖고자 함</p>

주제	안건 및 토의 내용
<p>제15대 집행부 이사장 임기 연장의 건</p>	<p>2. 의견나눔</p> <p>이진영(극단 찰리)</p> <p>현 이사장의 노고를 부정하고자 하는 의도는 없음. 다만 이미 연임을 한 상황이고, 상호 규칙과 약속으로 오랫동안 지켜온 부분을 사업의 중요성을 이유로 바꾸는 것은 반대한다는 의견임. 첫째로 민주적 절차에 예의를 허용하는 선례를 남길 수는 없음. 둘째로 세계 총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임기 연장이 필요하다는 것은 합리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매우 위험한 논리구조를 내포한다고 생각함. 셋째로 협회는 개인이 아닌 시스템과 집단의 역량으로 운영되어왔음. 넷째로 사적 욕심이나 권력 유지로 오인의 소지가 있으며 현 이사장에게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함. 협회가 지켜야 할 것은 성과도 있지만 원칙과 구성원 전체의 협력이라고 생각함. 사업의 안정성, 연속성을 위해서라면 (많은 회원들의 역량을 믿고, 차기 집행부와의 더 밀도 있는 협력을 기반으로) 예술 감독 등 다른 직책으로도 충분히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함.</p> <p>채정규(화이트캣시어터컴퍼니, 15대 집행부 이사)</p> <p>위 내용은 작년 이사회 당시 본인의 의견과 거의 같음(김우욱 고문위원의 첫 번째 제안 후 이사회). 그 이후 두 번째 제안까지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를 공유하고자 함. 사업 진행을 위해 여타 기관과의 협의 시 반드시 나오는 말은 '현 이사장의 임기가 언제까지입니까'였음. 본 협회의 정관에도 임기의 기간이 나와 있을 뿐 연임 횟수의 제한은 명시되어있지 않음. 예산 등 제반 상황을 마련하기 위한 과정을 지켜보니 개인의 욕심이라기보다는 현실적인 문제를 타개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보이며, 그 상황에서 김우욱 고문위원께서 '그렇다면 회원들에게 설명을 하고, 의견을 묻고 동의를 구해봐라'는 말씀을 주셔서 이렇게 자리가 마련되었음. 본인도 몇 단계의 과정을 거친 생각이니 이사장께서 자세히 과정들과 기타 사항들을 말씀한 후에 회원들께 마지막 의견을 물어보는 게 어떨까 함.</p> <p>김병호(극단 즐거운사람들)</p> <p>근본적으로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함. 총회에서 정관을 개정해서 진행해야 하는 부분이며, 설명도 충분히 들었으나 '돈(예산) 때문에 그래야 하는 것인가, 우리의 정신하고도 위배된다고 생각함. 그러나 우리가 이 이야기를 테이블에 올려놓을 정도로 건강하다는 자부심이 있음. 충분한 의견을 듣고, 절차와 규정에 반하지 않고, 회원들이 건강한 조직에 대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에너지를 이끌어 주시기를 바람.</p> <p>※방지영(15대 집행부 이사장)</p> <p>정관 개정사항은 아니며, 회원의 의결에 따르는 사항임</p> <p>노심동(문화발전소 깃들)</p> <p>협회라는 조직에서 발언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다른 협회에 비해 방향성도 명확하고 투명하다는 느낌을 강하게 가졌음. 건강하게 진행될 수 있는 단체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그래야 젊은 또래의 예술인들이 아시테지를 믿고 올 수 있다고 생각함. 연임에 대한 조항이 없다면, 오히려 4년 연임을 하는 것이 어떨까 싶지만 그 자리가 너무 힘든 자리인 것을 너무 잘 알고, 그럴 마음은 없는 것으로 느껴짐. 우리의 방향성을 잃지 않는다면 그에 의해 거대한 흐름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생각함.</p> <p>※방지영(15대 집행부 이사장)</p> <p>2020년 일본에서 세계총회를 하면 2년 뒤 본인이 임기를 마무리할 때 아티스틱 게더링을 하고 끝낼 예정이었음. 2002년 세계총회를 옆에서 도왔던 입장에서 세계총회가 얼마나 힘든 작업인지 알고 있었음. 그러나 팬데믹이 있었고, 일본 개최가 불발되면서 다시 아시아로 전체적인 분위기가 잡혔음. 본 집행부가 너무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이것을 계기로 우리 어린이 청소년 공연예술에 새로운 환기 효과를 주고 2002년 세계총회 때처럼 여러 가지 시장의 변화의 터닝 포인트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임.(어린이 예술정책과 어린이 당사자 예술가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포함)</p>

주제	안건 및 토의 내용
제15대 집행부 이사장 임기 연장의 건	<p>김석홍(15대 집행부 이사)</p> <p>아시테지 코리아 이사이자 아시테지 세계본부의 부회장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음.</p> <p>지금까지 나온 이야기들을 짚어보고자 함. 첫째로 임기연장이 우리의 정관에 위배되는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음. 1년 임기 연장이 원칙에 위배되는가? 동의하지 않음. 다시 한번 출마하고, 1년 뒤 사퇴하라는 의견도 있었지만, 이 경우 더 번거로운 과정들이 있음을 우리 모두 이해하고 있기에 이런 이야기를 오픈하여 할 수 있다고 생각함. 또한 이 작업은 현실적으로 매우 힘든 작업이고 예산의 한계로 하지 못한 세르비아의 경우도 있었음. 수원이라는 베뉴도 현실적인 대안으로 현 이사장 네트워크의 결과임. 또 국제적으로도 ‘한국은 왜 계속 파트너가 바뀌는가’하는 하소연도 있음. 리더가 바뀌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에 불안한 부분이 있고, 현명한 해법을 찾는 것이 중요함. 원칙과 정신은 물론 중요하나 실제 업무를 하는 입장에서는 현실적인 부분과 국제적 커뮤니케이션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함.</p>
	<p>배은옥(동화가 꽃피는 나무)</p> <p>임기를 1년 연장한다면 내년 2월이 아닌 그다음 해에 차기 이사장을 선출해도 되는데, 미리 하는 것은 총회에 차기 이사장을 선보이기 위함인지? 정관상의 어떤 부분을 회피하기 위한 것은 아닌 것인지?</p> <p>※방지영(15대 집행부 이사장)</p> <p>그런 것은 아님. 13대 김숙희 前이사장의 공약으로 본인도 1년 전에 선출되어 1년 간 인사를 다니고 해외와 소통한 것이 큰 도움이 되었음. 하여 연장 및 미리 선출하여 세계총회에서 인사한다면 연락처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었음.</p>
	<p>한혜수(화성에서 본 지구, 15대 집행부 이사)</p> <p>이사로도 활동을 하고 있어 본인의 경험에 빚대어 안건에 찬성했던 이유를 공유하고자 함. 본 극단 외에도 프로젝트 극단의 경험이 있는데 여러 팀이 모여 프로젝트를 진행하려니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음. 또, 타 협회에서는 이정도로 유기적인 모임이 어렵고, 그래서 협회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함. 더욱이 예술 현장이 국가 지원에 의존하는 것이 커진 상황에서 8년 동안 이어져 왔음. 건강하지 못한 것으로 비추어질까 우려된다는 의견이 있었지만 오히려 우리가 건강하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터놓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함. 이사장의 임기가 이전에는 3년이었는데 필요에 의해 논의와 개정을 거쳐 4년으로 수정한 것처럼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바꿀 수 있는 힘이 있다는 자체가 아시테지의 힘이라고 생각함. 관공서와 일을 진행하며 늘 부딪히는 부분은 90%까지 완성했는데 관리자가 바뀌어서 사업이 없어지는 경우임. 역으로 했을 때도 불편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듦. 또 차기 이사장을 미리 선출하고 1년 임기가 연장되면 그 사이 더 밀도 있는 업무 인수인계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함. 권력 때문이라면 오히려 4년 연임이 더 간단하지 않을까 했지만 그런 의도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준비를 더 단단히 해서 차기에 넘겨줄 수 있겠다는 생각으로 동의하게 되었음.</p>
	<p>송인현(극단 민들레)</p> <p>오늘 1년 업무보고를 보니 책 한 권의 분량임. 2027년에는 이 일을 안 할 것인지? 오히려 제도상으로는 현 이사장이 세계총회에 대한 책임을 맡을 수 있는 구조(직책)를 만들어 맡고, 협회 사업들은 차기 집행부에서 진행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하는 제안을 해 봄.</p>
	<p>플래투스(극단 잼박스, 15대 집행부 이사)</p> <p>먼저 총회 6개월 전에 이양받은 차기 이사장에게 책임을 넘길 수 있겠는지 생각해봐야 함. 또, 외국인의 시선에서 한국의 신뢰도는 낮은 편임(잼버리 이슈). 행사마다 리더가 바뀌는 것을 다른 아시테지 멤버들은 과연 어떻게 생각할지? 물론 건강한 것은 중요하지만 외국인 시선에서 리더가 바뀌는 것은 그리 건강해보이지 않음. 민주주의 역사 등 모든 것을 이해하며, 어렵고 번거로운 문제지만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협의해야 한다고 생각함.</p>

주제	안건 및 토의 내용
<p>제15대 집행부 이사장 임기 연장의 건</p>	<p>장철기(극단 꼭두광대) 출마를 하면 당선, 즉 재임이 될 것 같은데(그 이후 그만두어 임기를 맞출 수도 있고), 굳이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1년 연임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방지영(15대 집행부 이사장) 다음 세대로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함. 본 집행부가 총력을 다하는 것은 세계 총회까지라고 생각하고, 집행부도 바뀌고 하는 환기를 위해 4년을 더 할 생각은 없고 그래서 이런 자구지책의 의견도 나오게 되었음. 만약 재임을 하고 중간에 임기를 그만두게 되는 경우 2년보다 하루는 넘기면 기존 부이사장 중 연장자가 하게 되고, 2년보다 하루 전에 그만두고 다시 보궐선거가 필요함. 그렇게 되면 너무 번거로워지는 상황이 생김. 개인적인 사정으로 그렇게 되는 것은 더 무책임한 것 같다는 생각이었음. 총회 이후 정산이 아마 28년 2월까지지는 진행될 것임. 순조로운 정산을 위해서는 사업을 진행하고 기억하고 있는 사무국 인원들이 남아있어야함. 해서 28년 2월까지 책임을 지고, 차기 이사장을 미리 선출하면 1년을 함께하게 되니 보다 순조롭게 인수인계가 되지 않을까하는 제안이었으나 오해의 소지도 있고 설명이 필요한 것 같아 오늘 이 자리를 만들게 되었음. 더 많은 회원이 이야기를 알고 흐름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함.</p> <p>3. 제안 5월까지 고민·논의하셔서 온라인에서 대의원 의결하는 것은 어떨지? (전체 동의) 해당 안건은 정관상에 문제가 없는 안건임을 다시 한 번 공유드리며, 온라인 의결 전 이사회에서도 한번 더 논의하고 절차를 고민해 보겠음.</p> <p>4. 기타(2027 아시테지 세계총회 관련 안내 및 홍보) -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많음, 많은 홍보와 정보 공유를 요청드립니다. - 현재 작품공모 중이며 심사방식 등을 마감일 전 한 번 더 설명드릴 시간을 가질 예정 (국내/해외 작품 별도 심사. 해외 작품 심사위원 그룹은 회원 풀에서 구성 예정) - Brave Futures : 한국어 슬로건 회원 공모 중이니 많은 의견 바람 - 어린이청소년에게 적합한 프린지 파트도 기획 중이며, 올 중하반기 계획 발표 예정 - 앞으로의 일들도 오픈채팅방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람</p>

### 9. 폐회

본 의안 및 경과요령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상기 의사록을 작성하고 대표권이 있는 이사가 기명날인한다.

2026. 2. 23.

(사)국제아동청소년연극협회 한국본부

의장 이사장 방 지 영

